

## 2017. 7. 25. [화] 언론보도



2017년 07월 24일 (월)  
종합

### 평화와 자연을 꿈꾸는 'DMZ 청소년탐험대' 출 정

평화누리길 트레킹, 자전거투어, 캠프그리브스 숙박 등을 통해 DMZ체험  
[KFM 경기방송 = 문영호 기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 청소년  
탐험대(1차)'가 오는 27일 ~ 28일 연천·파주 등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 역  
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DMZ의 자연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3년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청춘, 평화를 꿈꾸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탐험대의 1차 행사에는 중·고·대학생 탐험  
대원 207명이 참여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DMZ 2차 청소년탐험대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6만원으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70-7791-28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4.4 X 8.3 cm

# 비무장지대에서 평화를 꿈꾸다 'DMZ 청소년 탐험대' 모여라

중·고·대학생 207명 참여  
27~28일 DMZ 일원 체험

경기도는 오는 27~28일 1박 2일간 연천·파주 등 경기북부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DMZ 청소년 탐험대'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분단의 역사를 인식하고 DMZ 일원의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청춘, 평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청소년 탐험대원 207명이 참여한다.

대원들은 우선 연천 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군남두루미 테마파크~임진물새롬랜드 7km)와 도보 탐방(임진물새롬랜드~동이리 쉼터 4km)을 통해 DMZ 주변 지역을 살펴본다. 이어 안보관광지인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옛 미군부대 캠프 그리브스의 주변 시설을 둘러보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내활동으로는 DMZ의 역사와 생태환경에 대한 'DMZ의 모든 것' 교육 프로그램, 조별 모임 및 과제 해결 등을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모자, 팔토시 등을 지급하고 일정 수료 시 메달을 수여한다. 또 1일 4시간(지도자는 1일 8시간)의 자원봉사 실적과 함께 모범적으로 활동한 참가자는 우수 대원으로 표창한다.

도 관계자는 "DMZ 청소년 탐험대는 경기도가 2013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1천200여 명이 참여했다"며 "청소년들이 분단과 전쟁의 역사 현장을 느끼며 국가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 보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9~11일 2박 3일간 진행되는 2차 DMZ 청소년 탐험대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6만 원이다.

문의: ☎070-7791-2759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